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전세계 돼지중 57% (4억4천만 두) 사육

- 우리나라는 20위 돼지사육국

전세계 돼지 두수중 57%가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다. 미국농무성이 지난 3월 발표한 '97년 돼지 사육 상위 20개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돼지중 57%인 4억4천만두를 사육, 수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이 미국으로 5천6백17만두, 브라질이 3천2백74만두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6백38만두로 20위를 기록했다.

〈표〉 돼지 사육두수 상위 20개국 현황 (단위 : 천두)

순위	국 가	돼지 두수	순위	국 가	돼지 두수
1	중국	440,000	11	덴마크	11,079
2	미국	56,171	12	대만	10,698
3	브라질	32,739	13	멕시코	10,218
4	독일	24,500	14	일본	9,700
5	러시아	19,888	15	필리핀	9,078
6	스페인	18,700	16	이태리	7,900
7	폴란드	17,680	17	루마니아	7,850
8	프랑스	14,800	18	벨기에	7,600
9	네덜란드	14,000	19	영국	7,345
10	캐나다	12,010	20	한국	6,384
EU 합계		116,998	세계 합계		777,283

※주 : '97년 1월 현재 예측치(미농무성)

'96년 1월 세계 유력 31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총 7억8천5백50만두였으나, 그후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사육 의욕이 감퇴돼 '97년 1월에는 1% 감소한 7억7천7백30만두로 나타났다. 중국은 1년전에 비해 약 1백70만두 감소했으나 여

전히 전세계 돼지 두수의 57%를 점하고 있으며, EU가 1억1천7백만두로 15%를 점하고 있다. 덴마크는 1천1백8만두로 11위, 일본은 9백70만두로 14위, 필리핀이 9백8만두로 15위, 우리나라가 6백38만두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두수 35% 감소

- EU 전체로는 1.7% 증가, '98년 3월까지 2% 감소 예상

EU 통계국이 '97년 4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U 전체의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1,689만두로, '94년이후 계속되어 온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97년도의 돼지 도축두수는 네덜란드 등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한 1억8,741만두로 전망되었다.

주요국의 사육두수를 보면, 네덜란드가 4.3%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EU 최대의 돼지 사육국인 독일이 3.7% 증가한 것을 비롯, 스페인이 2.7%, 프랑스가 3.4% 증가했다. 특히 영국은 5.4%가 증가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EU의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은 '96년 3월에 발생한 우해면상뇌증(BSE)으로 쇠고기 수요가 감소한 대신,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96년 4월부터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양돈농가들의 사육의욕이 높아졌다. 그 결과 감소 추세에 있던

돼지 사육두수가 3년만에 증가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96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EU의 돼지 생산량이 1.7% 증가해 약 1억1,700만마리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돼지 생산 증가세는 '96년 8월에 시작되어 12월에 강세를 더하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만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돼지 콜레라 파동 여파로 4.3% 감소했다. 앞으로 EU 돼지 생산량은 '98년 3월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일년 전에 비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EU 총 돼지 생산량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구제역 박멸 운동 적극 전개할 듯

- 금년 가을부터 12년에 걸쳐 박멸사업 추진 계획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만 등 구제역 발생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발생이 보이는 등 점차 확산 추세에 있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면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년 가을부터 구제역 박멸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의 구제역 박멸 캠페인에는 일본과 호주, 스위스, 태국이 자금을 원조할 예정이고, 금년 가을부터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구제역 박멸 캠페인 기간은 금년부터 향후 4년을 제1단계 준비기간으로, 그 후 5년을 제2단계 콘트롤·백신접종기간으로, 그 후 3년을 제3단계 박멸·청정화 달성기간으로 정해 총 12년에 걸쳐 박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축위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엔 24시간내에 각국에 그 정확한 정보를 알려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OIE에서 통보를 의무화 한 질병은 리스트 A

와 리스트 B로 나뉘지는데, 리스트 A는 국경을 넘어 퍼질 우려가 크고,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현재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15종류가 지정되어 있다.

호주 돼지 심장 5~10년내 인간이식 가능

- 거부반응, 코브라랩 독으로 차단

호주의 심장전문의를인 피터 맥도널드 박사는 지난 8월 12일 "앞으로 10년안에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 박사는 돼지 심장의 인간이식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거부반응이지만, 코브라랩의 독이 거부반응을 차단하는 기적의 물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쥐에 돼지쥐의 심장을 이식한 후 코브라의 독을 이용한 결과 보통쥐는 1개월동안이나 살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돼지의 심장을 5~10년안에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널드 박사는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돼지의 장기로서는 심장과 신장이 유력하다며, 그 이유는 돼지의 심장과 신장이 사람의 그것과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돼지 배설물 약취 제거 연구 활발

- 100만달러의 연방자금 의회에 지원 요청

돼지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약취를 제거하는 연구가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대학과 다른 연구소의 연구진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오리아의 국립 농업이용연구센터의 과학자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연구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레이 라후드 하원의원은 지난 주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달러의 연방자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양돈업자들은 돼지가 통상 배설하는 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 제거가 분뇨처리문제와 함께 가장 큰 골치거리의 하나가 되어 왔다. 특히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돼지 분뇨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농무성 산하기관인 국립 농업이용연구센터 소장인 피터 B 존슨씨는 돼지 오물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돼지오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먼저 입자도 냄새를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만일 먼지 농도를 줄인다면 좋은 냄새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대학의 유안홍 장 농업기술대 교수는 가축오물을 열화학적으로 바꾸어, 오물 냄새를 풍기지 않는 연료용 기름 및 식물용 비료와 같은 산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파동으로 농무성 권한 대폭 강화 방침

- 불량식품 강제 회수 명령권 부여

클린터 미행정부는 오염 육류 등 불량식품에 대한 강제회수 명령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농무부와 식품의약국(FDA)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덴 글리크먼 미농무장관은 E콜라이 박테리아 등 세균에 오염된 햄버거와 주스, 굴 등 불량식품에 대한 사상 최대의 회수조치를 취한데 이어, 9월중 의회에 제출할 육류안전법안이 불량육류를 생산하는 육류공장에 대해 하루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사한 위반 행위가 거듭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식품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문제된 식품에 대해 농무부가 해당업체와 협의, 자발적 형식으로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생산품에 대한 농무부의 검사 실시권과 연방정부의 검사를 거치지 않

은 육류의 다른 주내 판매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BP사, 일본식 커트미트 생산라인 시험 설치

미국의 거대 육가공업체인 IBP사는 일본식으로 커트한 돼지 부분육을 시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주 300~400두 정도지만, 일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용라인을 설치해서 본격적인 생산을 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의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이후 냉장육을 중심으로 대체수입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대만이 완전한 일본식 커트를 한데 반해, 미국제품은 일본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동사는 일본에서 자사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일본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전용 커트미트 라인을 설치해서,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7월까지 돼지고기 29만4천톤 수입

- SG, SSG 영향으로 전년비 39% 감소

일본은 지난 7월까지 총 294,156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7% 감소한 양이다.

이처럼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금년들어 계속 긴급수입제한조치(SG)와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가 발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된 7월 들어서 돼지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7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2%나 더 수입되었다.

7월까지 일본에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덴마크로 79,935톤을 수출했으며, 그 다음이 미국으로 71,442톤을 수출, 덴마크와 수위 다

〈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1~7월)

(단위 : 톤, ()은 전년비 %)

구분	대 만	덴마크	미 국	캐나다	한 국	합 계
냉장육	12,331(26.4)	30(54.5)	48,266(102.2)	7,790(192.9)	4,604(177.3)	73,288(72.8)
냉동육	35,065(29.1)	79,905(69.4)	23,176(42.7)	20,430(74.8)	21,248(108.4)	220,868(58.3)
합 계	47,396(28.3)	79,935(69.4)	71,442(70.4)	28,220(90.0)	25,852(116.5)	294,156(61.3)

틈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중 25,852톤을 수출, 대만의 47,396톤과 캐나다의 28,220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까지 일본에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했으나,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3월 하순 이후 수출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대만은 지난 해보다 71.7%감소했고, 덴마크는 30.6%, 미국은 29.6%, 캐나다는 10% 각각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16.5%가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 7월의 돈육 수입량은 12만 3천톤으로 급증하였다. 작년 7월부터 1년간의 셰이프가드(관세 긴급제한 조치)가 6월말로 해제, 관세가 떨어져, 식육메이커가 수개월전부터 국내등의 창고에 보존하고 있던 비축분의 수입수속을 일제히 했기 때문이다. 비축분의 대부분이 방출되었기 때문에, 8월이후의 돈육수입량의 급증은 없을 것 같다. 관세의 감면 조치가 발동된 8월과 9월을 합쳐 10만톤전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셰이프가드 재발동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국가별로는, EU 각국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7만6천6백톤으로 되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4월부터 맹위를 떨친 돼지콜레라 발생이전에 수입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덴마크 이외의 EU제국은 콜레라 피해로 수출여력은 없을 것 같다. 3월 20일부턴 대만산 수입 금지로, 식육메이커 상사는 대만산을 대신할 덴마크산 냉동품을 7월말 시점으로 8만톤, 국내 창고에 확보하고 있다.

21년만에 수입돼지고기 관세 감면 조치

- 8월 한 달간 관세 4% 인하 효과

일본 농수성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관세 감면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21년만에 발동되는 것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촉진, 일본 국내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 감면기준액은 부분육(정육)의 경우 561.6엔으로 연행 기준수입가격 586.76엔에 비해 25.7엔(4.4%) 인하되는 것이다. 일본은 7월부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해제했기 때문에, 6월의 SG 발동시에 비해서는 167.13엔(23.0%) 인하되는 것이다. 지육의 관세 감면기준액은 507.61엔(현행 기준수입가격은 440.6엔)으로 이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4.7%의 증가세가 면제된다.

일본이 이처럼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것은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금지, 유럽 여러나라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국제 돼지가격의 상승, 국내산 돼지출하감소로 돼지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을 통헤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덴마크 상반기중 생돼지 51만두 수출

- 네덜란드 돼지콜레라 영향으로 56% 증가

덴마크의 도축업조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덴마크가 수출한 생돼지는 51만두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량중 90% 가량이 독일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2월 이후 수출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원래 새끼돼지를 네덜란드에서 주로 수입해 왔다. 덴마크가 금년 상반기중 수출한 돼지는 새끼돼지와 육성돈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덴마크가 수출한 생돼지를 지육으로 환산하면 약 3만6천톤에 달하는 양이다. **養豚**